

#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와 만난 사람들

\* 3/25(목) 요한1/2/3서

## Before 출치며 읽기

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?  
참 성도들은 누구입니까?  
신앙 공동체가 지킬 것은  
무엇입니까?

## After 묵상하기

나는 참 하나님의요,  
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 
온전히 믿고 있습니까?  
  
나(우리)는  
빛 가운데 거하며  
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?

요한은 제자들 중 장수한 편에 속합니다.

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‘기둥’ 같은 인물이었습니다(갈2:9).

요한은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직전(AD 70),

성에서 빠져나와 에베소 지역으로 피신하여 머뭅니다.

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미신에 사로잡힌 이방도시였습니다.

종교적인 산업들이 발달하여 부의 원천이 되었으며(행19:24),

영적 타락과 성적 부도덕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(엡5:1-21).

요한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.

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, 이생의 사랑이 아니라,

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, 불법과 범죄에서

떠납니다. 빛 가운데 거합니다(요일1:6, 2:3-6, 15-17, 3:3-6)

요한서신 하면 <사랑>을 떠올리게 됩니다.

요한이 <사랑>을 강조하게 된 데는 사정이 있었습니다.

그의 공동체는 크게 4부류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.

❶ 사도의 증언, 주님의 가르침에 올바르게 서 있던 부류

❷ 유대교적 배경에 치우쳐 예수님의 <신성>을 도외시 한 부류

❸ 헬레니즘적 배경에 치우쳐 예수님의 <인성>을 도외시 한 부류

❹ 극단에 치우쳐 공동체 밖으로 나간 자들(요일2:18-19).

거짓 가르침은 점점 세련되고 교묘해졌습니다.

분리되어 나간 자들은 지성과 지식을 높이 샀습니다.

세계와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믿었습니다.

하나님이 그런 ‘세계’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.

예수님이 <육신>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도 거부했습니다.

구약과 신약, 신앙의 근본을 뿌리 째 흔드는 일이었습니다.

그들은 스스로를 도덕적, 영적 엘리트라 여겼습니다(1:8, 10).

자신들만 최고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.

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았고, 만났고, 곁에서 섬겼던  
참 하나님의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증언합니다.

‘적그리스도’의 잘못된 가르침을 ‘진리’로 반박합니다.

잘못된 신념으로 나뉘고 분열된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

<사랑>하며 <진리>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가 되라고 권합니다.

(요일2:18, 22, 3:8, 23, 4:1-3, 4:6, 10, 15, 5:3, 5, 8, 10, 요이 1:1, 6, -7)